

다산포럼

전쟁 가능하게 된 일본을 우려한다



김 태 희
다산연구소 소장

다시 또 일본군이 이 땅에 상륙할 수 있게 되었다. 독도 해상에서는 해상자위대가 미·일 동맹의 기치 아래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듯이 한국의 이익과 동의라는 명분 아래, 지금 일본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남의 일일 수 없는 까닭이다.

지난 9월 19일 새벽(오전 2시 18분) 안보 관련 11개 법안이 일본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리더로 야당의 저지와 국민의 반대 분위기 속에 강행되었다. 공교롭게도 1931년의 9월 19일은 전날 밤 피습을 핑계로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 침략을 본격화한 날이었다.

언론이 전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새로 제정된 국제평화지침법은, 국

회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언제든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게 했다. 개정된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으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존립위기사태) 자위대가 타국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또 중요영향사태 안전확보법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위험이나 영향의 판단은 일본 정부가 한다. 더욱이 무력공격사태법은 중요영향사태법과 달리 해당영역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규정도 없다.

이러한 법률은 현행 일본 평화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은 전문(前文)에 평화정신을 담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확고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戰力)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향후 헌법까지 바꾸려 하

고 있다. 아베 총리의 행동은 일본 국민의 평화를 위협에 빠뜨릴 것이다. 위험적 법률의 제·개정에 대다수 일본 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헌법학자들은 집단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존립위기사태) 자위대가 타국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또 중요영향사태 안전확보법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위험이나 영향의 판단은 일본 정부가 한다. 더욱이 무력공격사태법은 중요영향사태법과 달리 해당영역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규정도 없다.

이러한 법률은 현행 일본 평화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은 전문(前文)에 평화정신을 담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확고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戰力)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향후 헌법까지 바꾸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행동은 일본 국민의 평화를 위협에 빠뜨릴 것이다. 위험적 법률의 제·개정에 대다수 일본 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헌법학자들은 집단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존립위기사태) 자위대가 타국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또 중요영향사태 안전확보법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위험이나 영향의 판단은 일본 정부가 한다. 더욱이 무력공격사태법은 중요영향사태법과 달리 해당영역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규정도 없다.

서재, 세상을 말하다



박 철 상
문화박사·광주은행 영업지원부장

19세기는 지금 우리 문화,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 잉태된 시기이다. 왕실문화는 민간으로 스며들었고, 여왕의 지식인들은 그런 문화를 흡수하며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추사 김정희라는 걸출한 인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가 이룬 성과는 우리의 눈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당대 학예(學藝)의 중심으로 불리던 중국에서 인정받은 것이었다. 추사의 이러한 힘은 1810년에 있었던 연행(燕行·청나라 연경에 사신으로 가는 것)과 이를 통한 북학(北學·청나라 문화를 배우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행과 북학을 통한 청나라 문

이조묵(李祖默)의 보소재(寶蘇齋)

물의 유입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학의’를 지어 청나라 문물의 수용을 주장했던 박제가는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했고, 이조묵은 패가망신에 이르렀다.

이조묵은 당시 북학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 때문에 그의 일생은 추사와 대비시켜 살펴볼 만하다. 이조묵의 자는 강다(絳茶), 호는 육교(沃橋), 본관은 전주이다. 그의 부친은 이조판서를 지낸 이병정(李秉卿)이다. 이병정은 선이라는 늦은 나이에 이조묵을 낳았다. 정조는 그런 이병정을 축하해주었고, 이조묵이 마마를 무사히 넘기자 그 또한 축하해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조묵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자주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조의 죽음과 부친의 죽음으로 이조묵은 제대로 벼슬길에 나가지도 못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성장한 이조묵이 옹방강 부자와 인연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옹방강은 김정희의 스승이었고, 그의 아들 옹수곤은 김정희와 둘도 없는 친구였다. 이조묵 또한 이들과 교류했는데, 중국에 가서 그들을 만난 게 아니라

편지를 통해 교류했다. 이조묵은 추사 김정희가 옹방강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서재를 ‘보담재(寶潭齋)’라 했던 일을 모방하여, 자신의 서재에 ‘보소재(寶蘇齋)’란 편액을 걸었고, 보소실(寶蘇室)이란 건물을 따로 짓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조묵의 이런 행동은 그리 높게 평가 받지 못했다. 당시 이조묵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중국 것을 좋아하는 사 람의 이상한 취미 정도로 밖에 평가받지 못했다. 그의 부친 이병정은 재산이 아주 많은 갑부였다. 죽을 때 이조묵에게 말했다. “네 관상을 보니 틀림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수 없겠구나. 네가 하루에 쓰는 돈이 10만전을 넘지 않는다면 70살까 지는 추위에 떨거나 굶주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조묵은 성격이 돈을 잘 쓰고 골동품을 좋아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종이로 수십 겹을 싼 것이었다. 열여섯이 말리죽은 파리였는데 “이것은 왕비가자 글씨를 쓸 때 파리가 붓끝에 모이 자 놀라서 이렇게 된 것인데, 대대로 전해 오면서 보물로 여기던 것”이라고 말하자 비싼 값을 치르고 구입했다.

현 아베 정권은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외면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조집은 무시할 수 없고, 추세만 꼭 지나치고서야 끝나는 경향이 있다.

돌이켜 보면,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의해 꾸준히 재무장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전쟁 등 냉전적 상황이 그때그때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비호 속에 상당한 성취를 이룬 우리로서는 적잖게 당혹스러운 구도이다. 일본이 패전 70년을 지나 다시 자국의 군대를 세계에 파견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는 분단된 상황 속에 우리 운명을 미국에만 내맡긴 궁색한 지경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에 전쟁으로 치닫는 근대의 야만이 꿈틀거리고 있다. 여러 사례에서 전쟁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오히려 전쟁에 따른 증으로 내연하고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의 정치 지도자는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가. 역설적이지만 우리로선 평화를 위해 군사력과 외교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남북문제를 얼른 해결해야 할 때다.

또 옹수곤이 이조묵과 만나기를 원하자 자신의 초상을 그려 보내 주었다. 그래도 보고싶어 하자 돌을 쪼아 형상을 만들어 역관에게 부쳐주었다. 역관은 돈만 많이 받고서 옹동의 시장에 가지고 가서 버려버렸다.

그가 날마다 사용하는 돈이 모두 이런 종류의 것들이었다. 더욱이 술과 여자, 노름으로 10년도 안 돼 집에 남아 있는 게 없게 되었다. 똑같이 청나라 학문과 예술에 빠져들었지만, 추사는 청나라 학예를 흡수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였고, 이조묵은 청나라 문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패가망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외래문화의 수용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다.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이다. 추사가 보여준 북학이란 외래문화의 수용 방식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또한 북학이라는 같은 길을 걸어갔던 추사와 이조묵의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똑같이 옹방강을 스승으로 받들며 서재 이름도 비슷하게 썼지만, 추사의 보담재가 성공한 서재였다면, 이조묵의 보소재는 실패한 서재였던 것이다.

社 說

혁신도시 공기업, 지역 인재 채용 더 늘려라

나주 혁신도시 소재 전력 관련 공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계획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한전 KPS·한전 KDN·한국전력거래소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나주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인재 채용에 나섰는데 겨우 구색을 맞추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여수율) 의원은 최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전력 관련 주요 공기업의 올해 채용 계획을 보면 지역 인재 채용률이 평균 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전한 전력 관련 공기업 4곳의 올해 정규직 채용 예정 인원은 1507명이며 그 가운데 지역 인재로 164명(10.9%)을 채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채용 계획 인원 1000명인 한전의 지역 인재 채용은 8.5%인 85명에 불과하다. 한전 KDN은 예정 인원 90명 중 20%인 18명을, 한전 KPS는 399명 중 15.3%인 61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한

국전력거래소는 별도의 채용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다른 지역 혁신도시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부산혁신도시시는 지난해 27.5%에 이어 올해도 23.1%를 지역 인재로, 충북은 12%에서 올해 19.9%로 무려 7.9%포인트나 올릴 계획을 다. 경남은 11.9%에서 16.7%, 대구는 8.9%에서 12.5%, 제주는 8.6%에서 13.6%, 전북은 10.7%에서 13.3%로 늘렸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나주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가장 낮은 셈이다.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취직을 위해 지방을 떠나는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지역 젊은이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선거구 축소 또 다른 차별 부른다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역구 자기가에 비상이 걸렸다.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한다면 영·호남과 도·농 간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의 지역구는 244~249개 범위에서 결정된다. 광주·전남에서는 최대 2곳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광주·전남의 의석 수는 현행 19석(광주 8, 전남 11)에서 17석(광주 7, 전남 10)으로 감소한다.

획정위가 지역구를 최대한인 249개로 결정한다고 해도 농어촌 지역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8~9석 정도가 늘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최소 5~6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획정위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내년 총선 지역구 규모가 관철되면 호남 정

지권은 입지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행 30석인 호남 국회의원 의석수(광주 8, 전남 11, 전북 11)는 20대 국회에서 26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영남은 현재 67석에서 최대 5석이 줄더라도 62석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 간, 영남과 호남 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는 선거구 획정안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많다. 표의 등가성 유지를 위해 인구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타당하지만, 기계적인 잣대만으로 선거구를 조정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또 다른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치 현실상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호남은 영남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태다. 여기에 단순한 인구기준에만 얽매어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이로 인한 폐단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획정위와 정치권은 선거구민의 ‘권리 등가성’도 고려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 고

올 겨울 남도관광 ‘한정판 마케팅’으로



이 명 종
한국여행 광주전남본부장

지난 1979년 어느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업체가 돼지고기를 이용한 신상품을 개발해서 테스트 단계에서 평가가 좋아 미국 전 매장에 정식메뉴로 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매출은 당초 기대와는 딴판이었다. 돼지고기를 이용했기에 조리시간이 오래 걸렸고 맛에 대한 평가도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메뉴는 사라졌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재료도 맛도 가격도 그대로인 햄버거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햄버거 업체가 기간별로 지역별로 ‘한정판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신상품에 희소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예컨대 한 달은 시카고에서만 팔고, 그리고 또 한 달은 뉴욕에서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니 순식간에 인기상품으로 부각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메뉴는 2011년 정식 메뉴로 다시 오르게 됐다.

국내에서도 이처럼 ‘한정판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여 매출을 끌어올린 사례가 많은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불면 제조업체 애기를 꺼내볼까 한다. 보통 판매하는 불면의 가격은 300원이다. 그런데 한정판으로 가격을 50배 높은 1만5000원짜리 불면을 출시했다. 결과는 어떠하였을까? 통상 불면보다 50배 비싼 가격인데 과연 팔릴까 걱정했음지도 모른다. 그런데 결과는 대박이 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희소성을 높인 데 있는 것이다.

이런 예는 어떨까? 공기와 다이아몬드 중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공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으니 그리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이아몬드는 어떠한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사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사용가치를 보면 어느 것이 비싸야 할까? 결과는 다이아몬드는 정말 비싸고 공기는 공짜

이다. 이렇게 가격이 설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희소성에 있는데 종종 희귀한 다이아몬드 일수록 가격이 더욱더 올라가는 현상이 이를 반증한다 하겠다.

우리가 쓰고 있는 동전도 희귀성이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한다. 지난 1998년에 발행된 500원짜리 동전이 얼마 전 경매에서 140만원에 낙찰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어떻게 500원짜리 동전이 액면가보다 2800배 비쌀까? 1998년의 경우 IMF 외환위기 직후라 다른 해에 비해 500원짜리 동전을 적게 발행한 것, 즉 희소성이 높아진 데 그 이유가 있었다.

이처럼 어떤 상품에 ‘한정판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여 ‘희소성’이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남도 관광자원 중에 이 같은 희소성이 높아져 대박이 난 사례를 보자.

최근 희소성이 가장 부각되는 곳은 화산적벽 투어일 것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1985년부터 30년간 출입을 통제하여 오다가 2014년 10월에 일반에 개방하였는데 지금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경우는 어떠한가?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던 곳이 국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명절 교통 정체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쇠기 위해서는 한바탕 귀성 전쟁을 치러야 한다. 한꺼번에 밀려드는 차량으로 인해 고속도로는 거의 주차장이 되다시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 끝에 지칠 대로 지쳐 겨우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서울에서 청운의 꿈을 꾸던 20대 시절에는 기차나 고속버스 외에도 학교 대절버스, 관광버스, 친척 승용차 편승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고향(전북)을 찾았다. 입석이지만 제시간에 도착하는 기

응시간(보통 1초 정도)이 길고, 도로 위차 움직임이 균일하지 않으며, 운전자가 교통상황에 과잉반응해 과도한 감속을 하는 것을 꼽았다. 서울~부산 간 경부고속도로에서 차 간 거리 100m를 유지하며 시속 100km로 4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24시간 동안 도로 한 지점을 지나는 차는 9만6000대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절 기간에 도로 위 1km 거리 안에 있는 차 대수(차량밀도)가 10% 정도 늘며 극심한 교통 정체

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추석 명절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광주에서 역방향으로 올라가기에 차량의 막힘이 없어 한결 수월해졌다.

사실 명절 교통 정체는 교통사고가 난 구간이 아니더라도 늘 발생한다. 성균관대 김범준 교수는 최근 펴낸 ‘세상 물정의 물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갑자기 앞 트럭에서 짐이 떨어지거나 고라니가 도로로 뛰어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교통정체를 ‘유령정체’(Phantom traffic jam)라 부른다고 한다.

김 교수는 사고가 나지 않아도 도로 정체가 나타나는 이유로 운전자의 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정 지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F A X 02-773-933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